

시설 사회에서 보호와 안전이란 이름으로

가만히 응크리고 있는 것만이 아닌

차별 , 혐오 , 분열 정치에 맞서

분노를 힘으로 , 투쟁으로

세상의 변화를 요구한다 ●

우리 모두 각자의 삶과 경험을

끈질기게 연결하면서

내 삶의 주인으로서 목소리 내어

싸운다 ● 시설사회에 균열을 내는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

목차

장애여성공감 연간보고서 2021

발간사	4
장애여성공감 소개	6
활동보고	8
대표활동	10
법인 사무국	11
연구정책	19
성폭력상담소	20
숨센터	29
연대활동	34
월별 주요활동	40
발간자료 안내	42
재정보고	44
후원회원	46

Women with Disabilities Empathy Annual Report 2021



발간사

코로나19로 변화된 일상은 우리의 삶과 불화했고, 2021년에도 탈시설 투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관계를 맺는 일이 더 어려웠지만 우리가 만나야 하는 이유는 더욱 분명해진 한 해였습니다.

장애여성공감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신아재활원에 코호트 격리 및 탈시설 문제를 제기하고 현장의 동료들과 함께 시설의 굳건한 권력을 흔드는 투쟁을 했습니다. 이 투쟁을 통해 시설에서 30년을 넘게 살아온 이가 집이 아닌 이곳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선언하며 시설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시설의 존재가 '정상'인 법과 제도, 보호받고 통제 받아야 할 '합법적인' 존재가 있는 사회, 탈시설 욕구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는 사회에서 탈시설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애여성들과 함께 만들어 온 일상공간이 코로나19로 닫히고 활동이 중단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장애로 인한 차이, 소통과 문화를 고민하며 오랜시간 몸으로 만나고 관계맺어온 현장을 지키기 위해 더 열심히 만났습니다. 장애여성학교, 반가워만세팀, 회원모임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차별이 무엇인지 장애여성의 경험을 힘차게 말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또한 올 한해도 장애여성공감은 인권상담, 성교육, 탈시설 현장에서 시설화의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현장을 통해서 의제를 찾고 현장과 정책을 연결하는 논의에 집중했습니다. IL과 젠더포럼은 제도화 이후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정책의 공백뿐만 아니라 동료로서 관계맺는 삶을 위해 시설사회에 도전하는 공동행동을 이어나갔습니다. 20주년을 맞이한 성폭력 상담소는 반성폭력 운동 안에서 중요하게 제기했던 이슈와 쟁점을 다시 살펴보고 운동의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결되고 이어지는 연대활동도 이어나갔습니다. 낙태죄 폐지 이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와 사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투쟁에 함께 하였습니다. 올해 새롭게 시작한 2세 산재 모임은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노동현장의 차별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연결되는 활동 속에서 장애와 질병을 가진 몸으로 살아가는 삶이 피해만이 아닌 권리의 주체가 되는 운동의 고민들을 넓히고자 합니다.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에서는 코로나19 방역정책의 문제를 짚으며 차별과 혐오, 낙인을 발생시키는 사회구조의 문제를 드러내고 추모와 애도의 부재를 고민했습니다.

장애여성공감은 이윤과 효율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줄 세우는 사회에서 우리는 왜 장애여성운동을 해나가는지, 조직 내부의 속도와 기조를 발맞추어 나가기 위한 장애여성리더십의 중요성을 치열하게 논의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아직 깊이 만나지 못한 시/청각 장애 등 접근성과 음성언어 중심의 소통방식에 대한 고민을 연결하고 서로 다른 차이를 가진 우리가 함께 하기를 고대합니다.

2021년의 활동을 연간보고서로 정리하면서 장애여성공감의 운동을 든든하게 지지해준 많은 분들에게 감사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2년에도 평등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차별에 맞서 함께 활동할 동료들을 응원합니다. 장애여성공감은 앞으로도 열심히 싸워나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5월 13일
장애여성공감 공동대표 조미경, 이진희

장애여성공감 소개

설립목적

장애여성공감은 장애여성인권의 향상을 표방하는 운동단체로서, 장애여성을 배제하는 제도와 기준이 가진 문제에 공감하고, 다양성이 인정되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한다. 사회의 주변부에서 장애를 이유로 분리되어 있는 여성들의 문제를 알리고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위한 운동을 벌인다. 장애를 가진 여성들은 모든 여성에게 주어지는 서비스와 지원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장애를 가진 남성과는 다른 요구들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 자신의 요구를 스스로 잘 알고 있으며,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택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장애에 대해 자랑스러워할 수 있으며 자기 정체성에 있어서 선택권이 있다. 따라서 장애여성공감은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장애여성의 인권보장과 사회변화를 그 목적으로 활동한다.

법인 사무국

- 행정재정 법인 전체 행정, 후원관리 등
- 조직사업 장애여성학교, 장애여성극단 춤추는허리, 회원 자조모임 등
- 인권상담 장애여성 인권침해 상담 및 지원
- 교육사업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인권교육 등
- 활동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연계 및 상담

연구정책

- 장애여성 인권, 섹슈얼리티, IL운동 및 소수자 정치와 관련된 담론과 정책 연구

부설기관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 성폭력피해 장애여성을 위한 상담 및 직접적인 지원활동
- 장애여성 인권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제안 활동
- 성폭력 예방을 위한 당사자 및 주변인 교육과 사회인식 개선 활동
-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체계 망 조성을 위한 연대 활동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

- 젠더적 관점에서의 독립생활 지원활동 (동료지지, 자조모임, 독립생활 프로그램 등)
- 탈시설 지원 활동 (탈시설 종합상담, 지역사회 체험 프로그램 등)
- 장애여성의 독립생활 의제 연구 및 담론 확장사업
- 장애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될 수 있는 사회변화를 위한 연대 활동

**시설 사회에서
보호와 안전이란 이름으로
가만히 웅크리고 있는 것만이 아닌
차별, 혐오, 분열 정치에 맞서
분노를 힘으로, 투쟁으로
세상의 변화를 요구한다 •
우리 모두 각자의 삶과 경험을
끈질기게 연결하면서
내 삶의 주인으로서
목소리 내어 싸운다 •
시설사회에 균열을 내는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

활동보고 ◦ 대표활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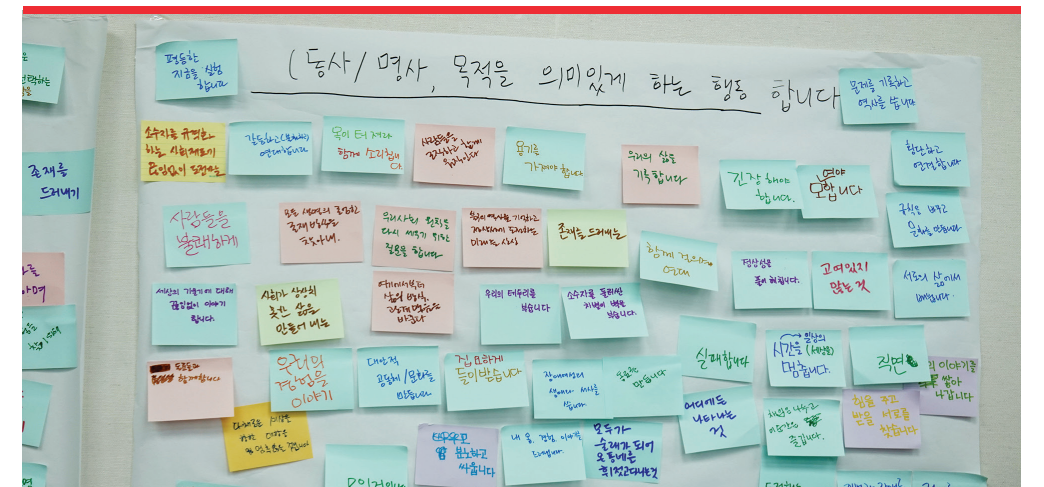
이진희 공동대표는 2021년 5월부터 현재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7기 위원으로 활동중입니다. 젠더관점으로 예술위가 공공기관으로서 성차별없는 예술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해야할 역할을 제안하는 것을 주된 활동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한국사회에서 문화예술 전반의 제도와 예술인의 창작을 지원하는 예술위가 성평등 관점의 제도를 고민하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문화예술계의 미투운동은 예술현장의 노동현장이 젠더화된 공간임을 폭로하고, 예술의 특수성이나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 권한의 영역으로 인식되던 문제들을 비민주적이고 폭력적 구조의 문제로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현장이 가해하는 권력과 싸우며 평등하고 민주적인 창작환경을 토론하는 동안 예술위는 적극적으로 제 역할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난 2년 예술현장의 성평등 요구를 정책과 지원 제도에 반영하는 것이 목적인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이하 성평등소위)에 참여하며 성폭력대응체계 구축과 예술위의 역할을 제안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1, 2기 성평등소위는 NCAS(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과 지원서 상의 불평등 요소를 문제제기하며 예술위가 매년 성평등 지표를 통한 장르별 여성 참여율을 검토하여 공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2021년 중반에서 2022년까지 운영한 3기는 예술위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사업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규정> 제정을 위한 논의와 지역간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성평등 관점이 부재한 예술위가 거버넌스를 형식적인 절차로 가져가지 않고, 의견을 수렴하는 책임 있는 절차로 인식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끝없는 현장의 문제제기와 간담회, 의견서 등의 참여로 2022년 4월, 예술위가 규정을 마련하였지만, 사건에 대한 조사권한을 제외함으로써 적용에 한계가 클 것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위계에 의해 발생하는 차별과 폭력의 문제를 드러내고자 예술대학, 노동환경, 나이, 지역, 경력 등 구조의 문제를 중층적으로 분석하는 <20,30대 여성예술인 진입구조 불평등 실태분석과 개선방향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22년 5월 9일 '평등으로 바꾸는 문화예술 생태계, 젠더 관점으로 다시 보는 예술의 가치와 공공의 역할' 토론회로 다양한 위치의 여성예술인의 활동이 드러내온 사회적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예술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과 정책의 시사점을 토론했습니다. 혐오와 차별이 심화되고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쉬, 구조적 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는 이 시기, 잔여적인 방식으로 여성예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을 넘어 성평등 관점으로 예술생태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연대와 도전행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진희 공동대표의 예술위원 임기는 곧 종료되지만, 예술위 활동 경험을 토대로 이후에도 해야할 몫을 계속 찾아가고자 합니다.

활동보고 ◦ 법인사무국

장애여성공감은 비장애중심 사회에서 장애여성이 함께 노동할 수 있는 구조를 위한 조직적인 대안을 만들고, 조직문화워크숍을 통한 장애여성 리더십에 대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갈등과 실패 속에서 동료적 관계맺기를 위한 실천은 계속될 것입니다.



올타리 넘어 12기 장애여성학교

코로나19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안전하게 위해 더 열심히 만났습니다. 올타리 넘어 <12기 장애여성학교>는 한글반, 음악반, 연극반, 체육반에서 장애여성들을 만나 코로나19로 변화된 일상에서 우리의 경험을 다양하게 표현하며 사소하지만 중요한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조직활동

<반가워만세팀>은 건강하게 활동하기 위해 내 몸을 돌보는 '만세체조'를 함께 연습했습니다. <일곱빛깔무지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집회/행사들이 온라인으로 대체됐지만 장애인인권영화제 등 연대의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선거모임, 제19회 서울인권영화제 영화 보기, 회원송년회 등 일상을 나누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활동보고 ◦ 법인사무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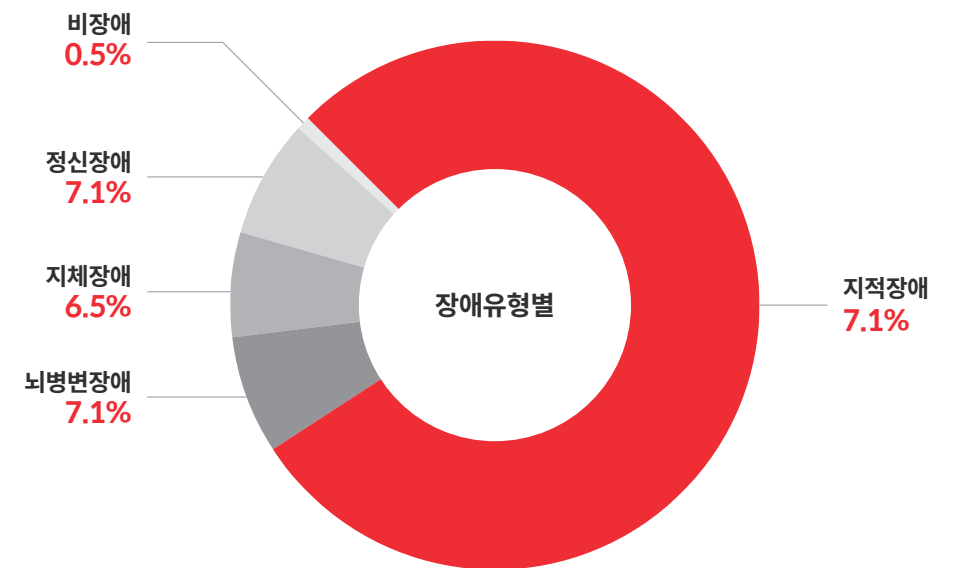
극단 춤추는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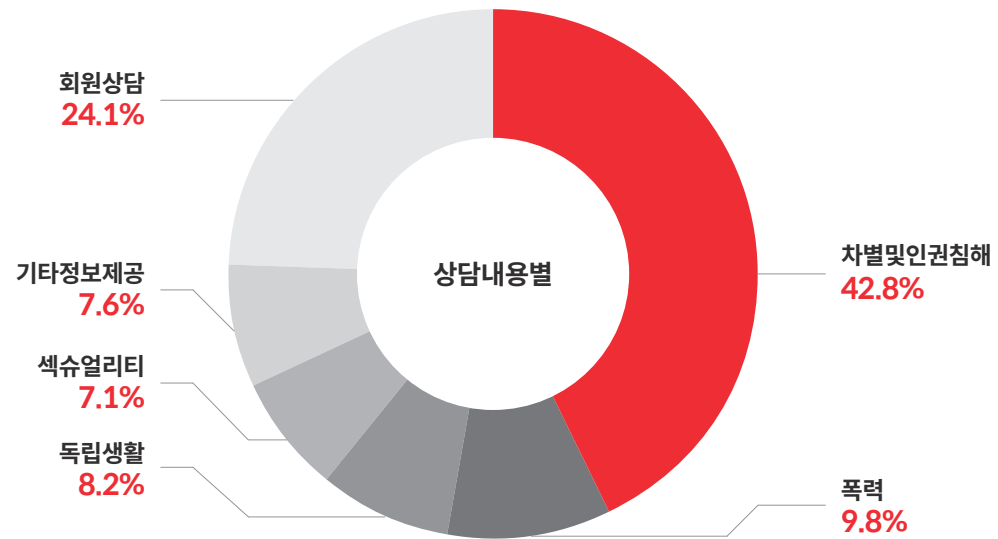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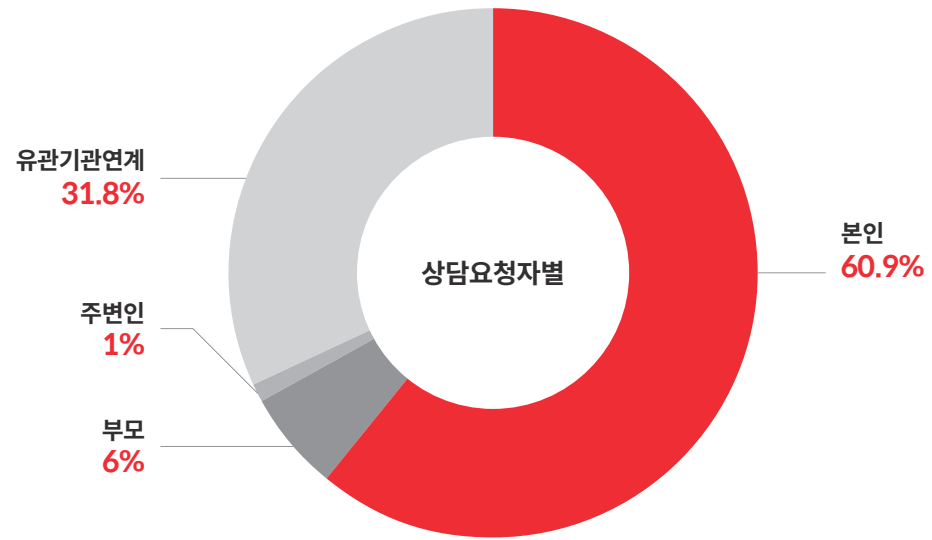
춤추는허리는 기존의 정기공연의 형태에서 벗어나 신체훈련, 문화비평, 공연기술 등 동료예술인, 비예술인들과 함께 문화예술워크숍을 진행하면서 내부역량을 다졌습니다. 1년간의 워크숍을 장애여성관점으로 해석하고 축적한 기록집 <장애/여성/배우/몸/쓰기>를 만들었습니다.



인권상담 (53명, 182건)

인권상담은 가족, 연인, 지인, 직장, 학교 등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차별과 폭력을 함께 중단하고 대항하는 방법을 찾아나갔습니다. 특히 신아재활원에서 탈시설한 하늘님과 함께 시설 내 인권침해 사안을 폭로하고 해결하는 활동에 집중했습니다. 장애여성의 차별과 피해 경험을 사회적 차별의 영향임을 분석하는 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는 당사자가 자립생활 권리를 이해하고 장애등급제 폐지 등 제도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등의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탈시설 이후 활동지원사와 이용자 간의 평등한 관계맺기를 위해 탈시설의 의미와 관점을 배우는 활동지원사 보수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탈시설과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의사를 일일이 설명하면서 확인하는 건 시간이 오래걸려요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독립생활선

내 말을 끝까지 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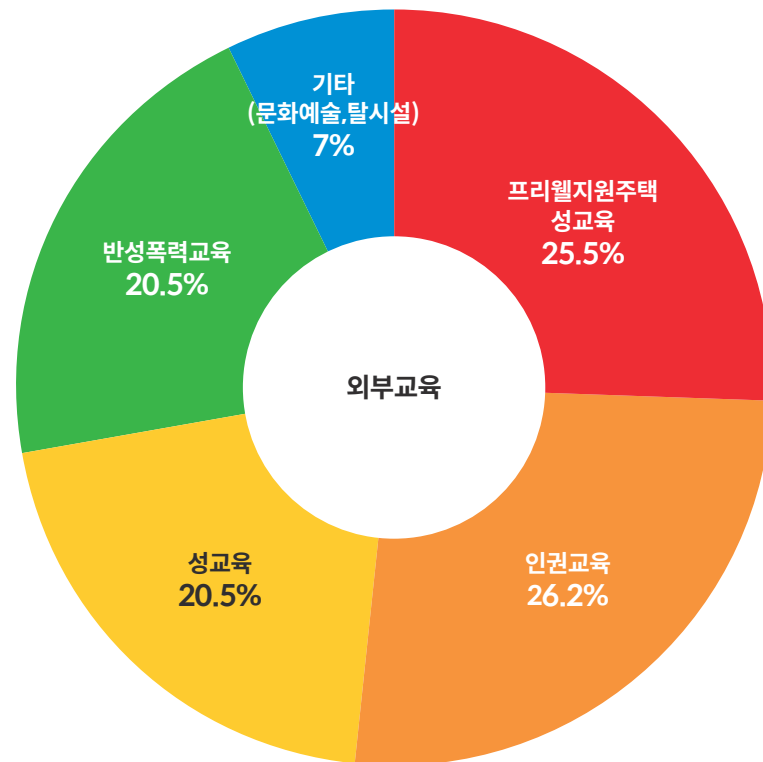
수박 사고 실운데 바빠! 빨리 가자!

◆ 시설 안에서는 내가 원하는것을 결정해본적이 없어서 결정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리거나 어려울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실패하는 결정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도 다 실패하면서 배우잖아요. 이용인에게도 실패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해요. 우리 천천히 함께 기다려봐요!

교육활동

프리웰재단에서 운영하는 지원주택으로 탈시설한 당사자들을 만나 성교육에 주력했습니다. 탈시설 이후 확장되어야 할 '관계'와 성적 권리를 지지하기 위한 '지원'은 무엇일지 고민하였습니다. 인권교육, 성교육, 반성폭력 교육 등 외부교육 요청은 꾸준히 들어오며 다양한 현장에서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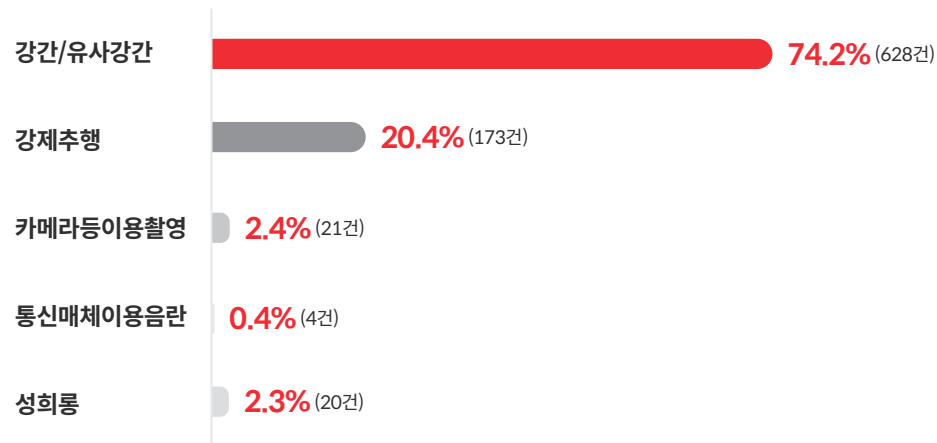
인권상담, 성교육, 탈시설 현장의 이슈를 기반으로 현장과 정책TF를 구성하여 정책에 대한 비판적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활동가, 연구자가 함께 공감의 의제를 공유하고 연결하는 연구정책네트워크를 진행하며 시설사회를 유지하는 구조를 분석하고 논의를 확장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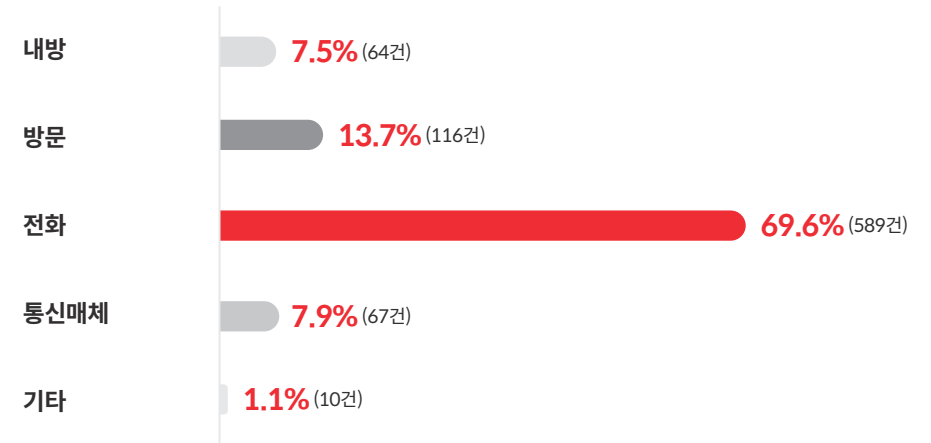
상담건수 (총 76명, 903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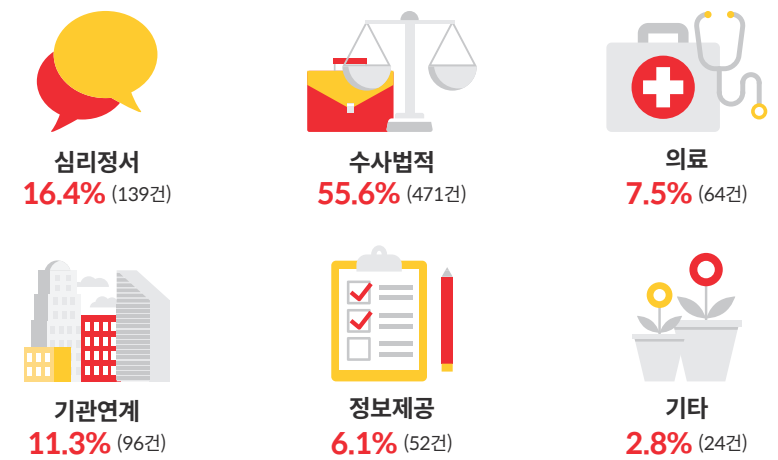
성폭력상담 피해자 유형별 지원 현황 (총 56명, 846건)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방법 (총 846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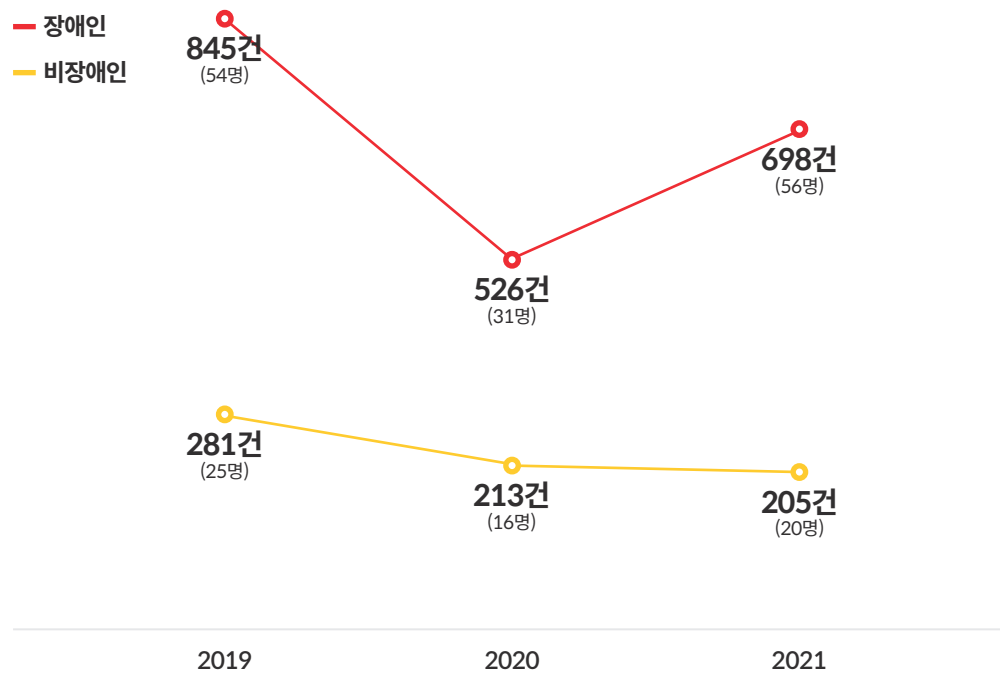


성폭력 피해자 지원내용 (총 846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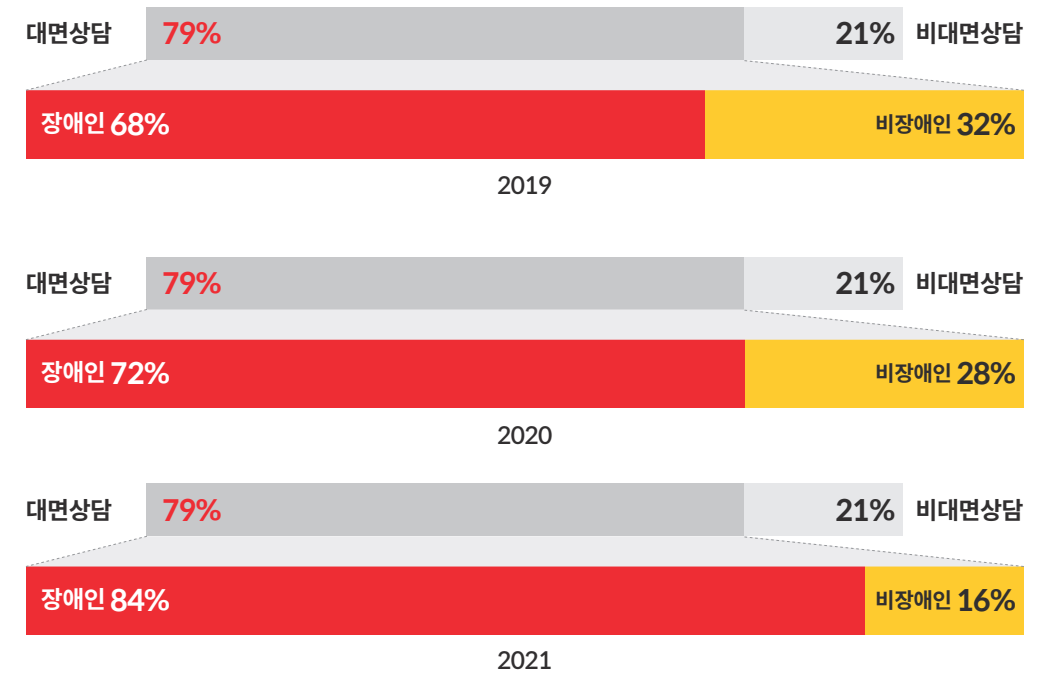
2019년 ~ 2021년 상담 통계 분석

1. 전체상담 건수 및 인원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은 2019년과 비교하여 상담 건수 및 인원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장애인 지원 감소폭이 비장애인에 비해 큰 것을 확인하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누가 영향을 더 받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 상담건수는 코로나 시기에 비해 회복되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사회적 자원이나 관계의 단절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더욱 피해자와의 적극적 소통과 연결의 중요함을 확인했습니다.

2. 성폭력 피해자 대면 상담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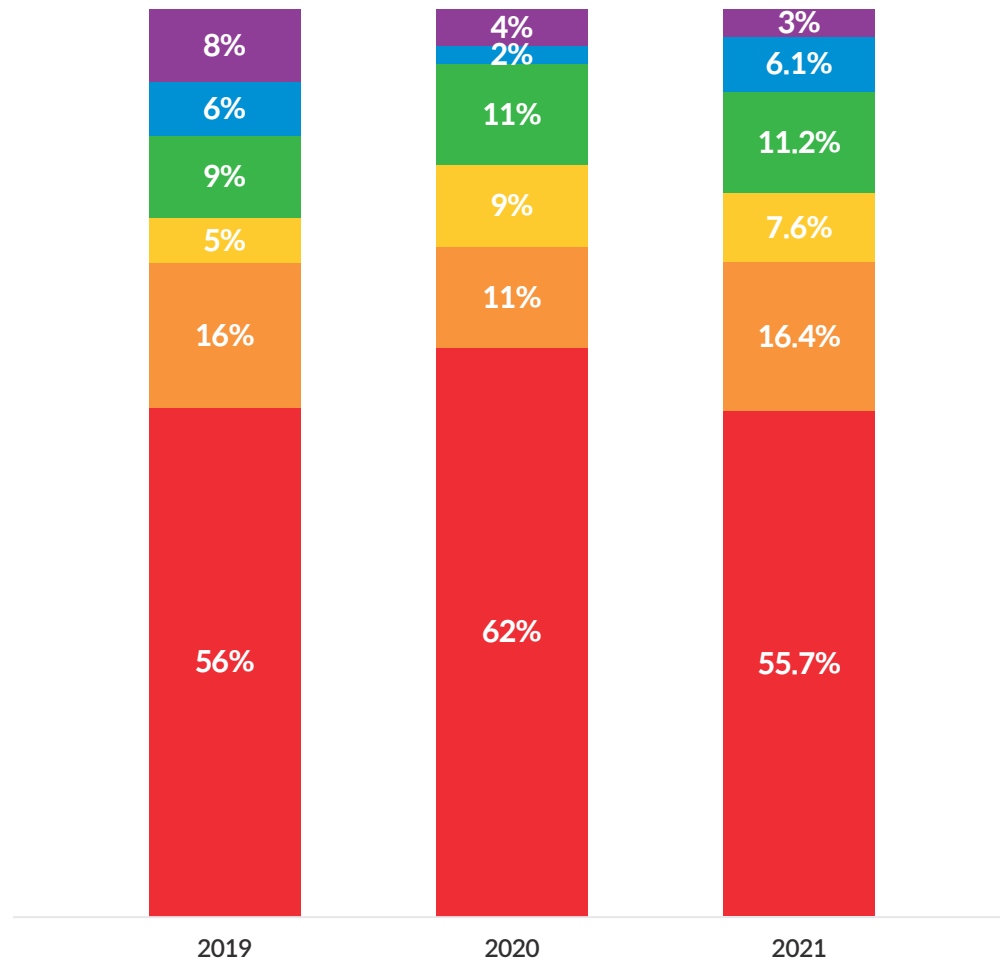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 상담(내방+방문) 비율은 21% 정도로 예년과 비슷하였지만, 장애인의 대면 상담 비율 상승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경향은 2021년에도 비슷하였으며 장애인에 대한 대면 상담 비율을 84% 정도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비대면 시대이지만 장애인 피해자 지원에서 대면 상담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 ~ 2021년 상담 통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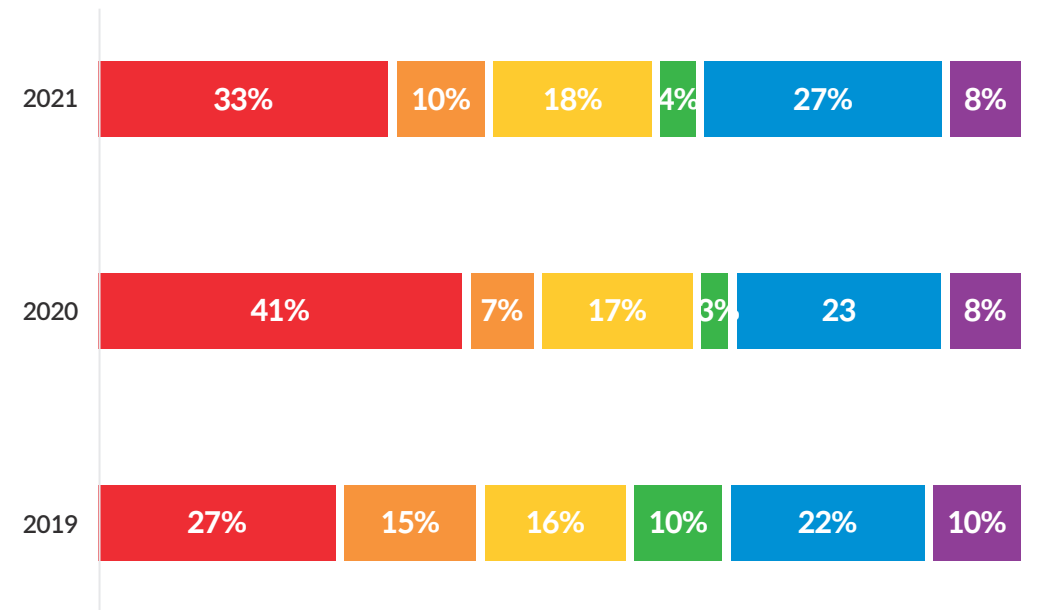
3. 성폭력 상담 지원 유형

● 수사법적 ● 심리정서 ● 의료 ● 기관연계 ● 정보제공 ● 기타



4. 성폭력 상담의뢰자 구분

● 본인 ● 가족/친인척 ● 수사/사법기관 ● 교육/행정기관 ● 연계기관 ● 기타/지인



연계 기관에는 해바라기센터, 피해자 변호사, 타 상담소, 1366, 사회복지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다양한 유관기관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피해자를 지원할 때 외부기관과의 소통은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외부 기관과 긴장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지원 원칙을 조율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 학교나 사회복지관 등이 정상운영되지 않아 장애인 피해자의 피해 발견(신고)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2021년 연초 코로나 안정되었을 때 학교나 복지관을 통해 연계의뢰가 늘었던 상황을 통해 주변 지원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이 피해자 지원에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2021년 상담경향 분석

1. 조직 내 성폭력 사건지원 과정에서 조직문화 변화에 개입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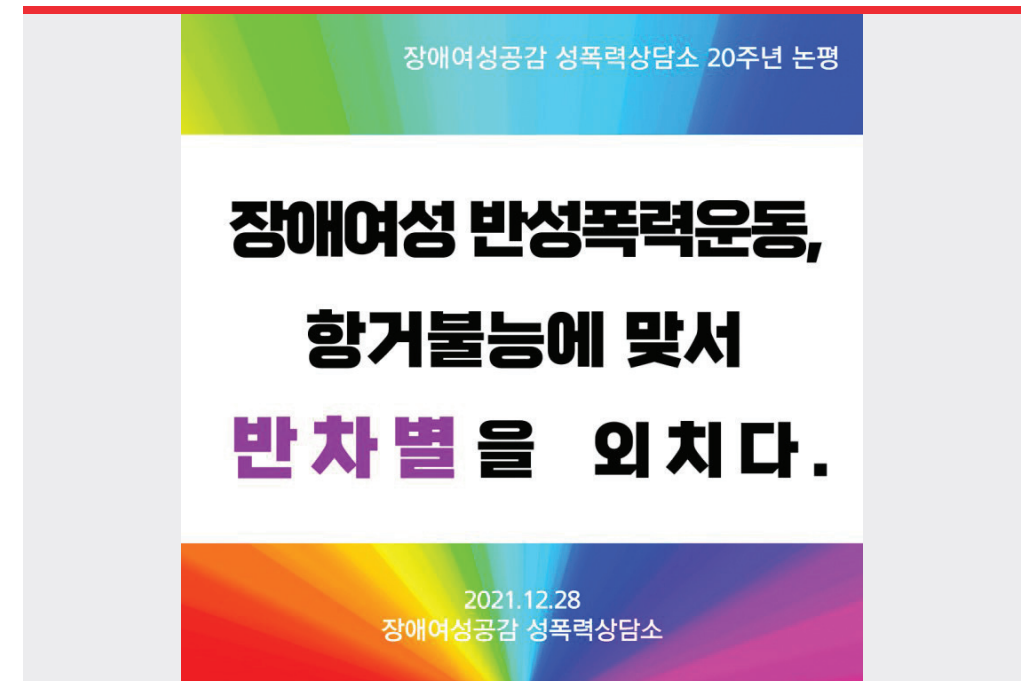
조직 내 성폭력 사건은 사건별 특성과 사건이 발생한 조직에 따라 지원 방법이나 개입 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 내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지원뿐만 아니라 성폭력이 가능한 조직문화와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방관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비난하는 2차 피해에 대해 조직에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장애여성공감 전체적으로 조직적 개입의 기초와 방향에 대해 토론하여 조직내 성폭력 사건의 주요 의제와 쟁점을 정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2. 규정된 법적 기준이 아닌 권리보장 중심의 지원활동

청각장애여성 수어통역 별도 지원, 코로나19 위급 상황, 임신중지지원 등 현행 지침에는 지원기준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규정된 법적 기준이 아닌 피해자 권리보장 중심의 방향과 원칙을 공동으로 토론하고 논의하며 조직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여성의 성과 재생산권리 보장이 성폭력 피해에 국한되지 않도록 제도 마련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다양한 장애 유형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원칙과 대안 마련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나가고자 합니다.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활동 20주년

성폭력상담소는 활동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장애여성 반성폭력 운동의 주요 쟁점을 공유하며 장애여성의 무력함 증명을 요구하는 사회규범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상담활동의 향후 방향을 토론하고자 활동가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운동과의 관계, 강간죄개정운동의 동의개념을 장애여성의 관점으로 재해석하기 위한 활동도 지속하였습니다. 앞으로 상담소는 규범에 도전하며 장애여성 반성폭력 운동의 구체적인 활동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활동보고 ◦ **성폭력상담소**

발달장애여성 자기옹호활동 <독립공작소>

독립공작소는 장애여성이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과정으로서 지지적인 동료관계를 맺고자 했습니다. 개별적인 피해경험에 국한하지 않고 권리를 가진 동료시민으로 장애여성의 차별경험을 사회구조의 문제로 인식하고, 권리를 당당하게 말하는 자기옹호활동을 기획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여성의 주체적인 일상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활동보고 ◦ **숨센터**

숨센터는 장애인수용시설 신아재활원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과 코호트 격리된 차별적인 구조에 문제 제기하는 긴급탈시설 투쟁을 진행했습니다. 탈시설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묻고 신아재활원의 인권침해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탈시설 지원 현장을 기반으로 현 정책의 부재를 비판하며 탈시설 운동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활동보고 ◦ **숨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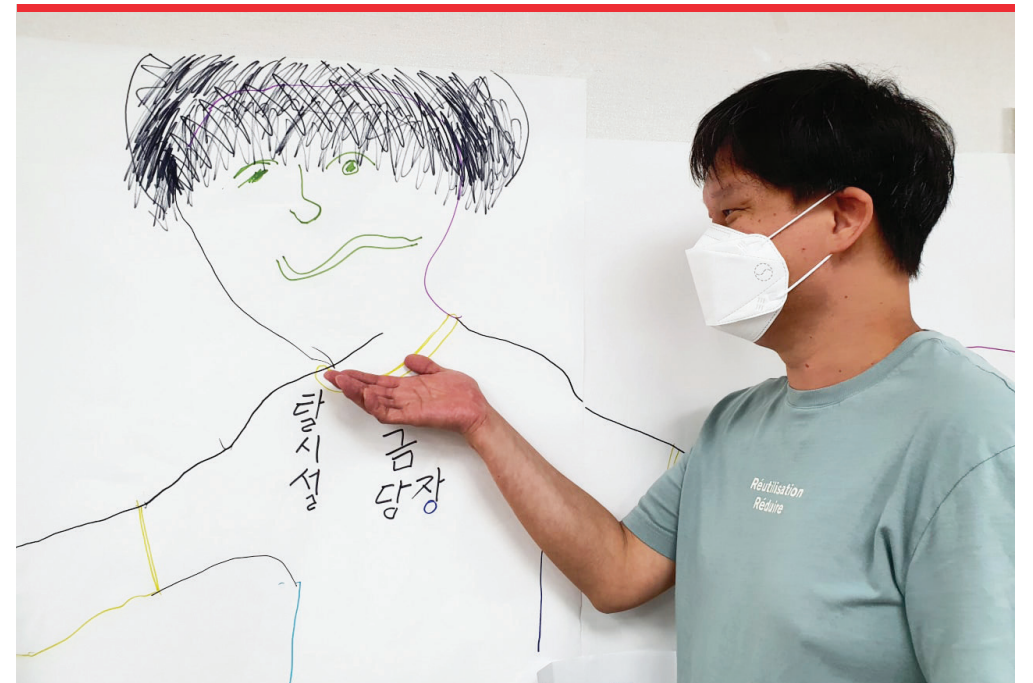
신아재활원 긴급탈시설 투쟁 <시설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신아원이 코호트 격리된 상황에서 당사자에게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차단하고, 휴대폰 검열과 제한, 발달장애인의 행동을 약물로 통제하는 화학적 구속 등의 인권침해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일상적으로 차별이 발생하는 시설의 구조에 문제제기하며 당사자의 삶과 증언으로 투쟁의 근거를 만들고자 합니다.



탈시설 지원

장애인이 가족과 시설을 나와 독립에 대한 경험을 넓히는 동료상담 및 장애여성독립생활프로그램(ILP)를 진행하였습니다. 탈시설 이후 삶의 공간에서 관계를 맺고 갈등하며 탈시설-독립생활 권리를 쟁취하는 투쟁 현장에 함께 목소리 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장애여성 재생산권 세미나 <몸바람, 한바람!>

비음성언어를 사용하는 탈시설 장애여성과 몸으로 만나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표현하며 나의 감정을 말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소리와 촉감, 맛 등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면서 소통하는 방식을 서로 배우고 관계를 쌓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IL과 젠더포럼 <시설사회, 제도화 이후에 무엇이 오는가>

현재 탈시설 지원정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현장의 이슈와 고민을 연결하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호주의를 기반으로 설계된 정책이 당사자의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구조이며 시설이 개인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시설 중심의 정책에 대한 투쟁과 함께 제도를 넘어 동료시민으로 관계 맺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활동보고 ◦ 연대활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와 필요성을 꾸준히 알리며 운동을 지속해왔다. 21대 국회에서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와 국가인권위원회 평등법 시안 발표 이후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원내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2021년 변희수 하사 사망사건 이후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더욱 드높아졌다. 이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10만 국민동의청원>으로 이어졌다. 혐오와 차별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권리이며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담긴 결과였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1대 국회 차별금지법안 발언 1주년을 맞아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대국회 집중 투쟁’에 집중하였다. <차별금지법 연속 쟁점토론회>를 통해 차별금지법의 역할과 의미, 평등을 위한 사회적 과제들을 논의했다. 그럼에도 국회는 국민동의청원 심사 연장을 통보하였고 뜨거운 제정 촉구 의 흐름에 철회, 침묵, 유예시켜왔던 역사를 고수하였다. 국회 안팎의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2021 평등의 이어달리기 온라인 농성>을 통해 운동의 기억과 경험을 서로 연결하며 고민을 이어나갔다.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전국 도보행진 <차별금지법 제정 백만보 앞. 함께 걷는 여기, 평등길>로 한국사회 구석구석을 발로 디디며 차별금지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연대하는 평등의 행진을 만들었고, 2021 차별금지법 연대 제정 쟁취 국회 포위행동 <국회에 평등의 깃발을> 통해 국회를 향해 ‘차별금지법이 먼저다’라는 선언을 명확히했다.

안전함조차 평등하지 않은 사회에서 정기국회 마감을 앞둔 겨울, 칼날 같은 추위를 뚫고 <평등을 가꾸는 1인 농성, 하루농성>으로 차별금지법 5월 제정 쟁취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성과와 과제를 토대로 2022년은 발의를 넘어 반드시 제정하는 한 해로 만들 것이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건강보험 적용, 유산유도제의 신속한 도입 등 보편적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변화 활동에 집중하였다. <임신중지 경험 설문, 실태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보고서> 발표를 통해 의료제도 및 정책부재의 문제 등의 시사점과 향후 법-정책에 대한 제안 등을 요구하였다. 향후 모낙페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성평등 교육,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해 모두의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국가의 책임으로 명시하는 법안 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활동보고 ◦ 연대활동



가족구성권연구소

'가족다양성'을 넘어 차별과 불평등해소를 위해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가족정책을 제안하는 토론회자리를 가졌다. 한국사회의 가족제도 속에서 다양한 위치의 소수자들은 어떤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는지, 가족 실천으로서 가족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가족구성이 왜 권리인지 나눌 수 있는 자리였다. 이어지는 활동으로 회원 및 활동가들이 모여 독립과 돌봄, 주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공감은 앞으로의 활동에서도 가족구성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여성의 경험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고자 한다.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 확산 시 방역정책 및 백신접종 과정에서 사회적 소수자들의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채 차별의 가중되는 문제 및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을 경제적 논리로 추진하는 국가를 향해 인권 중심의 원칙과 방향의 필요성을 담은 성명 발표 및 관련 회의 등을 지속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추모와 애도가 부재한 사회에서 존엄한 죽음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며 활동하고자 한다.

2세 산재인정 모임

안전하지 않은 노동환경이 노동자의 재생산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산재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 안에서 태아산재법의 쟁점과 고민을 확장하고자 모임을 진행하였다. 2세 산재에 대해 여성의 몸에서 발생하는 피해로 규정하는 것이 아닌 노동환경과 재생산 정의의 문제로 분석해야하며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노동능력이 없는 존재로 구분지며 차별이 발생하는 구조의 문제를 제기했다. 장애와 질병을 가진 몸으로 계속 살아갈 때 운동을 이끄는 당사자로 조직하고 몸의 경험을 사회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논의를 함께 넓혀가고자 한다.

활동보고 ◦ 장애여성공감 연대 활동사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01년~2005년 장애인이동권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2003년~2005년 다름으로답은여성연대		2004년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공동연대		2008년~2010년 반차별공동행동	
								2009년 반성폭력운동 제도화 대응모임		2010년~2011년 소수자주거권확보를 위한 틈새모임
				2005년~현재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前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2005년~현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06년~현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2010년~2021년 강동주민자치네트워크			
								2011년 장애인 등 여성폭력피해자 사법절차참여권을 위한 연구팀		2011년~현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12년~현재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12년~현재 가족구성권연구소(前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2012년~현재 한국장애포럼(KDF)									
				2015년~현재 포괄적성교육권리보장을위한네트워크					
				2016년~2021년 성적권리와재생산권리를위한센터세어(前성과재생산포럼)					
				2016년~현재 전환치료근절운동네트워크(준)					
				2016년~2020년 메르스공동대응					
				2016년~현재 HIV/AIDS인권연대나누라+					
						2017년~현재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2019년~현재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		
							2020년~현재 준강간사건의정의로운판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2020년~현재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2020년~현재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2020년~2021년 신아원서울시농성대책기구	
							2020년 장애인거주시설'루디아의집'특별조사단		
							2021년~현재 다른세계로 길을 내기 위한 활동가 모임		
								2021년~현재 2세 신재 인정 모임	

월별주요사건

1월

-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 집단감염 코호트격리 중단 결정 촉구 긴급 농성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21년 투쟁 선포 기자회견 & 우동민연사 10주기 추모제 및 동판제막식
-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 재입소 반대! <집단감염 '긴급분산조치' 유지와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기자회견>
- 신아재활원 긴급분산조치 유지 및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긴급농성 기자회견
- 코로나19대유행이 밝혀낸 장애인 거주시설의 본질은 보호가 아니라 격리다. 더이상 시설로 돌아갈 수 없다! 신아원 긴급분산조치 유지 및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기자회견
-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천막농성 선포 투쟁 기자회견, <책 시설사회 낭독회>, <긴급탈시설 촉구 문화제 '거리로 나가자'>



2월

- 서울시장장애인이동권선언 완전이행촉구 지하철·버스타기 1차 직접행동!
- 장애여성공감 20차 정기총회



3월

- 신아재활원 인권침해 해결 및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서울시청 농성
-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 故정유엽 학생 사망 1주기 추모 기자회견
- 故변희수 하사 추모행동
- 제17회 326 전국장애인대회 및 420 공동투쟁단 출범식

4월

- 차별금지법은 생존의 요구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연내 입법 촉구 기자회견
- 차별금지법 제정촉구를 위한 목요행동 지금당장
- 420 장애인차별철폐 결의대회



5월

- 131주년 노동절 420공투단 해단식 및 2021년 장애인 노동권 3대 요구안 쟁취 결의대회
- 제 19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개막식 및 <춤추는 혼자말> 상영
- 12기 울타리 넘어 장애여성학교 개강식

6월

-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1인 시위
- 장애인이동권보장 지하철 타기 및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 촉구 기자회견



7월

- 포괄적 성교육 기본법 제정하라! 포괄적성교육 입법촉구 릴레이 1인 시위
- 제 9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공개좌담회 <위기의 한가운데서 전환을 모색하다-이 시대 돌봄이 던지는 질문들>
- 돌봄민주주의 페미니즘 연속기획포럼 <청년 돌봄, 더 잘할 권리를 찾아서>
- 한국성폭력상담소 릴레이 토크쇼 동의x동의의 적극적 합의



8월

- <가족, 결혼을 넘다>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연대 출범식
- 차별금지법 제정 힘 모으기 세미나 <차별금지법으로 실현하는 성평등의 의미>

9월-10월

- 2021 평등의 이어달리기 온라인 농성 <차별금지법과 도전행동>
- 화장실 비방: 공공공간의 성평등과 다양성 릴레이 토론회
- 2022 양대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출범식 및 탈시설장애인당 투쟁캠프 개소식
- 강동구청장 가정폭력 규탄 기자회견



11월

-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 여의도 농성
-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정책 이행 촉구 농성 선포 기자회견
- 모두의 걸음으로 차별금지법 제정까지!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촉구 시민대행진
-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서울시 장애인권리예산 쟁취 결의대회
- 12기 장애여성학교 졸업식& 독립공작소 발표회 <울타리 넘어 외골와글 독립의 밤>
- II과 젠더 포럼 <시설사회, 제도화 이후에 무엇이 오는가>
- 국회에 평등의 깃발을! 2021 차별금지법 연내제정 쟁취 국회 포위 행동



12월

- 19조는 위험이다 전파매개행위죄 폐지하라! 세계에이즈의 날 감염인인권의 날 기념 기자회견
- 세계장애인의 날 1박 2일 농성투쟁
- 연극연습 4 관객연습 <사람이 하는 일>
- 혐오와 차별에 공조한 더불어민주당 규탄 및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행동 성소수자가 직접 간다. 더불어민주당 답하라!
- 나중에 살수 없는 사람들 모이자! 2021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집중농성
-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 <시설사회를 넘어가기 위해서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과 해나갈 것들>
- 정기회 100일 차별금지법 목살한 거대 양당 규탄한다 <평등에 합의한 사회, 평등을 외면한 국회> 기자회견
-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진술녹화 증거능력 폐기처분한 헌법재판소 규탄한다!
- 장애여성공감 회원 송년회
- 2021 차별금지법 제정 송년문화제 <사랑과 우정이 이긴다>
- 한겨레21 페미사이드 특집 <'장애여성다움'에 가둔 그 보호는 가해였다>

발간자료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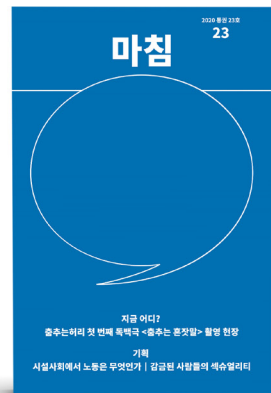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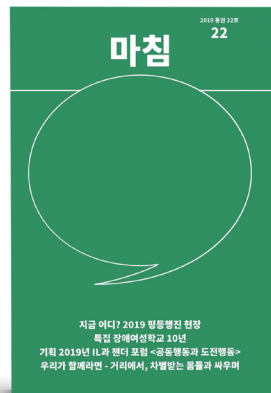
기획도서

- <어쩌면 이상한 몸> 2018년
- <시설사회 - 시설화된 장소, 저항하는 몸들>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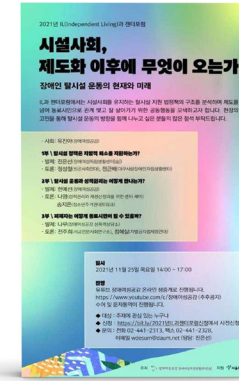
잡지

- 22호 기획: IL과 젠더포럼 <공동행동과 도전행동> 2019년
- 23호 기획: 탈시설 2020년
- 24호 기획: 시설사회 2021년



자료집

- IL과 젠더포럼 <시설사회, 제도와 이후에 무엇이 오는가> 자료집 2021년
- <장애여성 성을 밝히다> 1, 2, 3, 4권, 성교육 영상콘텐츠와 활용서 2020년



영상 콘텐츠

- 춤추는허리 웹독백극 <춤추는 혼잣말> 2020년

교육 콘텐츠

- 뮤직비디오 (다양한 사랑 / 산책, 계단, 키스) 2020년
-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사업) 애니메이션 영상 (월경/자위/연애) 2020년
- 활용서 2020년



재정보고

2021년 세입 결산서

(단위: 천원)

총계	3,819,014	
후원수입	109,755	2.9%
회원수입	503	0.0%
사업수입	64,353	1.7%
보조금수입	3,078,238	80.6%
기금공모수입	142,437	3.7%
기타차입금	40,000	1.0%
법인전입금	14,080	0.4%
기타예금이자수입	352	0.0%
기타잡수입	21,668	0.6%
전년도이월금	347,628	9.1%

2021년 세출 결산서

(단위: 천원)

총계	3,819,014	
인건비	748,350	19.6%
사무운영비	245,390	6.5%
교통비	12,106	0.3%
의료비	10,000	0.3%
재산조성비	4,376	0.1%
사업비	2,345,163	61.4%
법인전출금	14,080	0.4%
부채상환금	-	0%
잡지출	1,060	0%
반환금	1,769	0%
이월금	436,720	11.4%



장애여성공감 연간보고서 2021

발행일 2022년 5월
발행인 조미경, 이진희
발행처 장애여성공감
편집팀 경미, 여름, 은선, 주희, 진아, 진희
디자인 흑석동작업장
주소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664 대우베네시티 상가 411호
전화 02)441-2384
이메일 wdc214@gmail.com
홈페이지 wde.or.kr

Women with Disabilities Empathy **Annual Report 2021**
장애여성공감 **연간보고서 2021**